

• 회원사 동정 •

데이콤

데이콤, '연길이산가족정보' 제공계약 체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에 대한 이산가족정보가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된다.

데이콤(사장 손익수)은 최근 연길시 이산가족 소개소(소장 리춘자)와 "연길이산가족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PC통신망 천리안을 통해 제공한다. "연길이산가족정보"는 연변을 비롯, 길림성, 료녕성,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남한의 친인척을 찾기 위해 연길 및 단둥 이산가족소개소에 접수한 각종 인적사항을 체계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연길 현지에서 접수된 약 1천여 명의 동포와 이들이 찾는 국내 친인척들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는 "북방동포 이산가족찾기"와 새로 등록되는 이산가족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신규 이산가족 자료검색", 이산가족 상봉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연길시 이산가족소개소 게시판" 등 3가지 정보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리안 처음 화면에서 18번 "공공, 지역, 농수산물, 이산가족" 중 32번 "연길 이산가족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요금은 전화요금외에 분당 30원의 정보사용료가 추가된다.

"01420"접속을 더욱 편리하게, 전국 01420 품질개선과 증설!!

각 지방 "01420" 품질개선/증설, "천리안"을 더욱 가깝게!!

천리안에서는 01420의 품질을 개선하고 설비

를 확장하여 접속률과 속도에 대한 이용자 여러분들의 신뢰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01420"에 대한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신장애 현상을 줄이기 위해 "01420"의 품질을 개선하고 회선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접속 지연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01420"회선을 증설하여 '94년 8월 11일 현재 서비스 중에 있다. 천리안에서는 또한 "천리안 이용 만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각종 제안을 접수받아 단계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해 나가고 있으니 천리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한국PC통신

2000접속포트 증설-국내최대로 도약

하이텔 서비스포트가 2,000회선이 증설되어 94년 8월 1일자로 5,500여 회선으로 국내최대의 서비스에 걸맞는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 기회를 들어 증설기간중 발생한 장애에 사과드리며 하이텔은 이용자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던 접속장애에 최선을 다해 개선작업을 해왔다. 실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로 여름방학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이용자의 접속불만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와같은 노력의 성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위 포트증설을 위해 새로이 도입된 호스트 6대와 기존 호스트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최신의 라우터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클라이언트/서버 구조로 탈바꿈함으로써 속도면에서도 향상을 보이고 있다. 증설완료와 더불어 하이텔은 다시 하반기에 3,000포트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쾌적한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하여 초고속 및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하이텔의 최적전산망구축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이텔 전용 애플레이터의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3/4분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성정보통신

금성정보, "STAREX 운용센터"개관

지난 6월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서 국산 대용량 교환기를 첫 개통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금성정보통신이 최근 자사의 수출 주력 품목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한 "STAREX 운용센터"를 개관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18일 해외 수출 주력상품의 국내외 홍보와 사내외 고객들에 대한 심도있는 기술교육을 목적으로한 "STAREX 운용센터"를개관,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 가리봉 사업장 지하1층에 약 60평 규모로 마련된 이 운용센터에는 금성정보통신이 자체 개발한 STREX-TX1, STAREX-IMS 등 전자교환기를 비롯해 MMM(Multi Media Mu.) 등 각종 전송제품이 전시, 운용된다. 금성정보통신은 그동안 안양연구소와 구미공장 등에서 분리 실시해 온 해외 거래선에 대한 기술교육을 "STAREX 운용센터"를 통해 더욱 심도있게 수행함으로써 해외거래선에 대한 AS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시범운용이 가능한 이 운용 센터를 수출국에 가장 적절한 시범운용 환경을 조성하는 시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사제품과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금성정보통신은 정보기술훈련원에 이어 이번에 "STAREX 운용센터"를 개관함으로써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돼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성정보통신, TRS중국수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주파수 공용통신시스템(TRS)이 국내 최초로 수출된다.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중국 광둥성 혜주시 대아만 지역에 망교환기.중계기.단말기를 포함해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주파수 공용통신 시스템(모델명 STAREX-TRS)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계약은 미국의 모토롤러.스웨덴의 에릭슨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무선통신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성정보통신이 이번에 중국에 수출하는 STAREX-TRS는 한정된 주파수를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경제적인 무선통신시스템으로 모든 채널로 통화와 제어가능한 분산제어채널 방식을 채택, 통화접속률이 높으며 통화품질이 양호하다.

금성정보통신의 TRS는 대아만 지역에 설치돼 항만 및 육상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금성정보통신은 올해말까지 시스템 모두를 납품, 설치해 대아만 지역에서 내년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성정보통신은 이번 수출을 위해 지난 6월말 중국 광둥성 대아만 지역의 엔지니어들을 초청, 3개 기지국 15개 채널로 광역망 시험 운용중인 제주도 현장에서 국산장비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신뢰감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이미 독자개발한 교환기로 중국 유선통신시장에 진출해 있는 금성정보통신은 이번 TRS계약 체결을 계기로 무선통신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금성정보,은행대상 자동안내장치설치

금성 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전화번호 자동 안내장치인 AAM(Auto Attendent Module)을 개발, 금융권 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설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성정보측은 최근 조흥은행 4개 지점에 이 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용을 가졌다. 금성정보측은 고객서비스의 향상과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조흥은행 전국 2백여 지점에 이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다른 은행의 수주를 받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AAM은 은행의 고객들이 은행내선 번호를 모르더라도 교환의 도움없이 필요한 내선으로 연결되도록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를 설치할 경우 교환 인원을 줄이면서도 고객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수 있다. **DB**